

# 시 심사평\*

고재중

특정한 주제를 주고 시행하는 문예공모사업에 으레 나타나기 마련인 주제의식 과잉과 구호성 어법이 작년에 이어 올해의 5.18문예작품에도 어김없이 나타나는 걸 보고 안타까웠다. 거의 모든 작품에서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5월의 역사를 마치 직접 겪은 일인 양 목청 높여 외쳐대는 모습은 황당하고 민망할 지경이었다. 그런 당위성의 문학은 문학이 아니라 웅변이고 논설이라는 걸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.

그런 중에서도 <바보 진태일>을 쓴 송태영씨는 응모한 작품 모두가 특정하게 5월을 다루고 있지 않더라도 그 5월을 일상 속으로 내면화시키고 있어서 믿음직스러웠다. 당선작을 비롯하여 걸레 빠는 여자, 신용불량자,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인 운드디니 소년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로 사람다운 삶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의 의식을 긴 호흡으로 소화해 내 5월 정신을 일상 속으로 내면화시키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. 다만 당선자는 시는 긴장과 절제의 예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.